

◆머느리권씨열전 2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권문의 본향, 안동이 낳은 국가원수 임정국무령

석주 이상룡의 어머니 권씨(북야공파 32世,두경계)

안동을 추로지향(鄒魯之鄉)이라고도 하지만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고도 자칭하고 있다. 고려왕업을 이룬 결정적 계기가 된 병산전투의 승리가 바로 삼태사(權,金,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고구려의 옛 땅이 우리의 역사 강역으로 각인되게 된 것이다. 그 때 당연히 고려 태조 왕건이 머물렀고, 일본 정벌시 총열영이 30일간 행재소에 머물렀고 공민왕이 흥건적 침략으로 몽진시에는 70일간 임시수도로써 역할을 했다.

또한 조선 정신을 거의 대변하는 성리학의 대가 퇴계 이황(李滉,1502-1571)과 입란의 명제상 류성룡의 고향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1000명의 애국지사가 나온 곳이다.

한국 독립 항일5대 가문을 안중근,이회영,김동삼,허위,이상룡가(家)라 칭한다. 여기서 이상룡,김동삼은 안동인이며 허위 또한 구미이나 이상룡가의 손주 머느리가 허위 의병장의 손녀 허은(許銀)이니 연관이 있다. 임정의 법통을 인정한다면, 석주가 국무령의 위치에 있었으니 국가원수를 배출한 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수도(首都)’라고 칭함에 부족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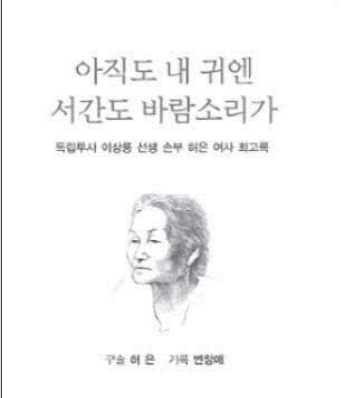
이번 안동역 이전으로 법흥동 낙동강변의 석주 이상룡 선생의 고성이씨 아흔아홉칸 고가는 일제가 잘라버린 백을 다시 이으며 그 진면목을 보일 것이라니 이 또한 경하할 일이고 음어리진 것이 잠깐 풀리는 느낌이다.

그 옛날 기자가 용상동 큰집을 드나들며 걷던 길, 월곡면 궁구리 가던 길등이 아련히 떠오르며 당시 에 어른들은 임창각, 군자정이 뭇지 이야기 해주지 않았고 퇴락한 그곳에는 그저 못사는 사람들의 기숙처 정도로 알고 후에 가끔씩 국산 무협영화 촬영장으로 쓰이는 길 봤을 뿐이니 처연하고도 황망할 따름이다. 그 앞 큰 다리 아래에 6.25때 부서진 잠수교 같은 잔해에서 먹을 감던 기억도 새롭다.

여기서 이상룡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자면 실제 그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안동권씨 달실마을 총재 권벌의 후손 권진하(權鎭夏,북야공파 31世)의 따님으로 이상룡의 부친 이승목(李承穆)의 아내가 된 것이고 3남3녀를 유복한 환경에서 키우고 평범한 부자집 마님으로 일생을 마쳤다고 봐야하니 별다른 이야기 꺼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후손들의 면면은 화려하고도 엄정하다.

장남 이상희(李象羲,1858-1932, 이상룡,국무령 국가원수,건국훈장 독립장,1962년),차남 이용희(李龍羲,1865-1951,이상동,의병동,애국장),삼남 이봉희(李鳳羲,1868-1937,이상훈,무관학교,독립장),이상룡의 아들 이준형(李濬衡, 1875-1942,자결,애국장),이용희의 아들 이형국(李衡國 1883-1937,경학사,애족장),이운형(李運衡 1891-1972,경학사,목사,애족장), 이봉희의 아들 이문형(李文衡, 李光民 1895-1945,정의부,독립장),이인형(李仁衡,李光國,1903- ？57.78월북후,남단총연맹,애족장),이상룡의 손자이며 이준형의 아들 이병화(李炳華,1906-1952,농민봉기,독립장),이병화의 부인 허은(許銀,1909-1997,독립내조,애족장)등 9명이 건국훈장을 받았다.

이외에 방계에 당숙 이승화(애족장),처남 김대락(1845-1914,애족장),처제 김락(1863-1929,애족장,향산 이만도 머느리),종고모부 김도화(1825-1912,의병장,애국장),사위(강호석,애족장),손자 사위 허국(만주항일),조카사위 김태동(대통령 표창),배부 박경중(애족장) 등등 연결된 진성이씨, 내알(의성) 김씨 일족등 이런식으로 연결하면 석주 이상룡의 애국지사 인맥은 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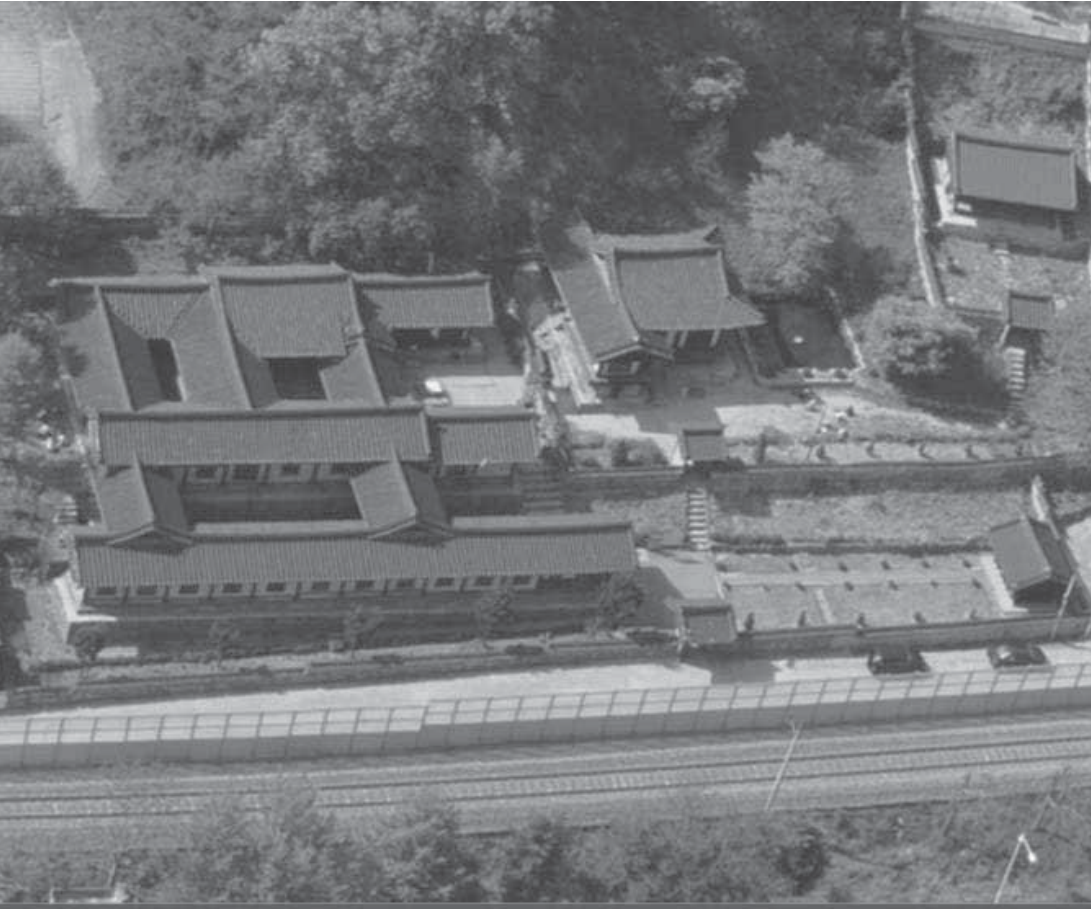


그런데 허은의 아들 이항증은 1939년 생으로 고아원에 있어야 할 지경이였다고 한다.

그나마 2018년 문정권에서 허은 여사에게 훈장을 수여하여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건국의 내조자 또는 그 희생자가 남자의 숫자 만큼 있을 것인데 포상자 중 15,689명 중에 2.8%만이 여성이다. 盧文 정권하에서 늘어난 게 이런 실정이다.

그리고 건국훈장은 1등급 대한민국장(독립 31명), 2등급 대통령장(93명), 3등급 독립장(806명),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이 있다. 그런데 애처러 국가元首급 이상룡이 3등급이하 나는 것이다. 통탄해 마지 않는다.

상해 임정이 정통성 운운하지만 윤봉길의 의거에 의해 그나마 존재감을 나타낸건 해도 이승만을 위시하여 형식적이고 탁상공문적인 행위는 가히 통탄할 일이다. 이에 안동독립기념관에 있는 안창호에게 보낸 이상룡의 무장투쟁 우선의 서찰은 의미 있



법흥동 임창각과 군자정

는 것이다.

2006년 도산 안창호의 비서 구익균선생(1908-2013)이 안동방문시 그 서찰을 물고거리며 바라보던 장면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그래도 당시 이상룡은 “(상해에 정부를) 이미 세웠으니 한 민족에게 어찌 두 정부가 있을 수 있으리오”라면서 ‘정부를 상해에 양보하고 군정부를 군정서(軍政署)라 하여 독판제를 채용했다’(‘행장’)고 전하는 것처럼 상해에 정부를 양보했다. 그래서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편해서 최고 책임자인 독판에 이상룡을 선임했다.

그러나 임정의 탁상공론은 “외교와 내정보다는 군사와 재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도 안창호는 달갑게 보지 않았다. 이 무렵 임정 내무총장(실권자) 안창호가 서로군정서 독판 이상룡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안창호는 ‘외교와 내정(內政), 재무와 군사가 임정의 4가지 대단(大端)’이라면서 의견을 구했다. 즉 임정의 정책 우선순위는 ‘①외교 ②내정 ③재정 ④군사’라는 것이었다. 안창호는 임정의 첫 번째 노선인 외교



임정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독립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효용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윤봉길의거의 핵심이 안창호,김구 그리고 장개석의 왕야초(王亞樵)로 이어지는 라인이라는 비사(秘史)가 있기도 하다. 도산의 아나키스트 단체

가담, 대독립당 결성과 무력투쟁 시도등은 더 알아내야할 우리 후손의 숙제이다.

고성 이씨는 중국의 노자(李聃)의 후손 漢 나라 중서사인(정4품급) 이반(李槃)이 있고 그 후손 중도호원수(都護元帥)가 BC109년 한무제의 조선(古) 침략시에 장군으로 와서 눌러 앉았다가 24세손 이항(李穰)이 고려 덕종 때 1033년 거란군을 격퇴한 공로로 이부상서(吏部尚書)에 올라 철령군(鐵嶺君, 경남 고성)에 봉해지면서 고성이씨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나 신빙성은 따져봐야 한다. 계파(派)는 8대에서 11대에 걸쳐 점차 형제가 나누어지면서 가계가 분창함에 따라, 안정공파(安靖公派), 둔재공파(純齋公派), 호군공파(護軍公派), 좌윤공파(左尹公派), 동주공파(同樞公派), 병사공파(兵使公派), 참판공파(參判公派), 사암공파(思菴公派), 도촌공파(桃村公派), 은암공파(隱菴公派)인데 이상룡은 참판공파이다.

안동 임항조 이증(李增,12세손)은 행촌 이암(李崱,1297-1364)의 증손이다. 여기서 이튼바 유사사학무라 통칭하는 <한단고기(桓檀古記)>중 행촌이 ‘단군세기’를 쓰고 의 현손 이백(李陌, 1455-1528)이 <태백일사>를 쓰고 이기(李圻,1848-1909)가 소장하다가 계연수(1864-1920)가 1911년 발행했다고 한다. 여기서 이상룡이 대종고 신자이고 계연수가 만주에서 측근으로 있었다고 하니 이 문제는 별도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당시 김좌진등 대부분 만주 무장투쟁 독립군은 대종고 신자였다.

이증(李增,1419-1480)이 안동으로 온 유래를 살펴보면 1445년에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곧 현감자리를 버리고 그전 경상감사인 장인의 상을 당해 방만한 안동의 경치와 풍속에 반한 적도 있어서 입향한 것이다. 여기서 ‘이증’은 안동의 세록가인 권자겸, 배효건, 남치신, 노맹신, 배효눌, 남치공,



권곤, 남치정, 남치인, 배주, 배정, 권숙형 등과 13현이 성종9년(1479년) 우향계(友鄉契)를 만들어 5문 중이 530여년을 내려오면서 아직도 그 전통을 잇고 있으니 대단 한 일이고 이중 권문은 세사람이다.

권벌 선생이 을사사화(1545년)로 낙향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그것이 딱 100년 뒤이니 이 또한인연



봉화 달실 마을 청암정

소생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럼 석주의 어머니 임창각의 종부 권씨(권씨(1832-1902,북야공파 32世 .두경1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남편은 이승목(李承穆,1837-1873,號秋巖) 이고 부친은 권진하(權鎭夏,1814-1852,북야공파 31世,두경1계)이다. 어머니는 의성김씨(在翼의 딸,1811-1845)이다. 진정 어머니가 14세에 돌아가시니 선성(예안) 김씨(樂佑의 딸,1829-1900)가 계모로 온다. 연령대를 봤을 때 3세 차이나는 계모를 맞는 셈이다. 남편은 5세나 어린 나이이고, 이상룡 선생을 27세에 낳으니 그전에 따님이 있었을 것이다.

시아버지 이종태(李種泰,1820-1894 號 忘湖, 묘갈명 의병장 김도화 晝,47세 생원)와 12세 차이 떠동갑이다. 첫 번째 시어머니는 20세에 여의고 새시어머니 진전 송씨가 들어왔다고 본다. 맏아들 이상룡이 45세에 71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묘소는 임북면 야유리(현 예안면 기사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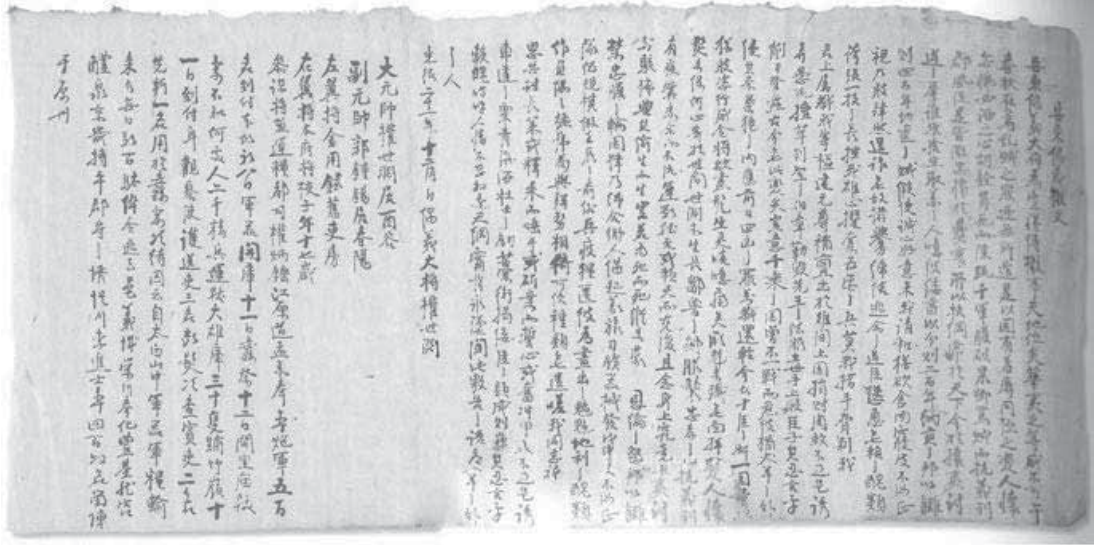
달실은 임항조 총재 권벌(20世)선생이 기묘사화(己卯士禍,1519년,중종 14)로 파직되자 태어난 고향인 안동 도촌과 가깝고 모친 卬씨의 고향 근방에 15년간 은거하다가 다시 출사하지만 결국 귀양가서 별세한다. 기실 달실은 권벌의 5대조부터 그 기반이 있었다.

권씨 부인의 부친 권진하(31世)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는 이와 같다.

권재화(載華, 30世, 1789-1874)－권의도(義度, 29世, 생원3등, 1764-1790)－권사호(思浩, 28世, 현감, 1733-1783)－권정택(正宅, 27世, 현감, 1706-1738)－권모(耆, 26世, 통덕랑, 1690-1751)－권두경(斗經, 25世, 홍문관 수찬 정인, 1654-1725, 斗經系)－권(濡, 24世, 1628-1681)－권석충(碩忠, 23世, 1606-1694)－권내(來, 22世, 양자 生 權東美의 자)－권동보(東輔, 21世, 靑巖公·참봉, 1518-1592)－권벌(樸, 20世, 1478-1548, 원상, 추증영의정, 길원군, 충정공)

이 위로 시조 까지 훑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권사빈(士彬, 19世, 성균유생 귀향 안동도촌, 증영의정, 1449-1535)이다. 이 위로는 권곤(琨, 18世)－권계경(啓經, 17世)－권후(厚, 16世)－권인(軫, 15世)－권세진(世珍, 14世)－권구(具, 13世)－권윤평(允平, 12世)－권자여(子興, 11世)－권수홍(守洪, 10世, 북야공파조)－권중시(仲時, 9世)－이여(利興, 8世)－권엄(廉, 7世)－권선개(先蓋, 6世)－자괘(子彰, 5世)－균한(均漢, 4世)－책(冊, 3世)－인행(인행, 2世)



권세연이 직접 작성한 격문, 유학의 이념에 의거 대의명분(국모시해,단발령)을 펴려

-행(幸, 시조)

의병장 권세연은 이상룡의 외삼촌이 된다. 그리고 이상룡의 종고모부 김도화가 권세연과 연합한 의병장이었다. 이때 예안의 이만도도 합세한다. 이만도는 합방시 순국자로서 이상룡의 처제 김락의 시아버지이다. 더불어 류성룡의 11세손 류신영도 권세연 휘하에 가담하고 그 아버지 류도발(1832.6-1910.10)은 1910년에 아들·류신영(1853.6~1919.3)은 1919년 자결로서 항일을 실천한다. 근래 독일 경매에서 김도화의 문집 책판(목판원본)이 나와서 구입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다.

권세연(權世淵, 1836-1899,의병장)은 참봉을 지냈으며,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정재 류치명(1777-1861)에게 수학하였다. 안동 병진(兵陣)의 정신적 지주 구실을 하였다. 1895년 민비시해사건과 단발령에 격분한 안동지역 의병들은 안동관찰부를 점령하고, 유지호(柳止浩)·김흥락(金興洛) 등 참모진은 권세연을 안동의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이에 권세연은 격문을 발표하여, 각지의 의병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민심을 크게 격려, 고무시켰다. 이 격문에는 침략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자에 대한 증오심이 설득력 있게 표현되어 있어, 의병규합에 큰 몫을 하였다.또한, 이것이 계기가 되어 1896년에는 예안의 이만도(李晩叟), 영양의 조승기(趙承基), 문경의 이강년(李康季)·유시연(柳時淵)·김도화(金道和)·김도현(金道鉉) 등 각지의 의병장들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그러나 1월 28일 안동으로부터 도망쳤

던 관찰사 김석중(金奭中)이 많은 관군을 끌고 공격하여 의병들이 패배하였다. 권세연은 최후까지 싸워서 한 몸을 바치고자 하였으나, 참모들의 간곡한 권고에 못이겨 피신하였다.상훈은 1983년에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이후 사망시 차남 권상규(權相圭)에게 ‘내가 일찍이 감히 의병장에 임명되어 나라의 원수를 통설(痛雪)하지 못했으니 부끄럽다. 내가 죽더라도 명(銘)을 쓸 경우 진실로 창의학한 일에 대해 떠벌려서 확대시키지 말라.’라고도 하고 맏아들 권상태의 아들인 손자 권경섭(權景燮,1890-1844,애족장)은 파리장서사건 관련 애국지사이다.

후에 권벌의 증손자에 권석충(碩忠)과 권세충(世忠)으로 갈리는데, 이 두 후손에서 파리장서사건의 權相經(1890-1955,표창), 權相翊(1863-1934,애족장)이 나왔다. 봉화에서는 권상익, 권명섭, 권범섭, 권상원, 권상도, 권상문 건건경, 김창우, 김순영등 9명이나 나왔다.

꼭 석주 이상룡이 친가,외가,처가 할 것 없이 모두 총절의 인물로 둘러싸여 있고 그의 모친은 비록 귀한 집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녀의 친정 또한 절개의 집안이라 그 가르침이 범상치 않았을 것이다.

이제 민족정기를 살리는 일에 그 하나가 시작되고 있고 여기에 권문의 머느리 권씨의 음덕이 있음을 다시 새기고저 한다.

권오철 기자



2019년5월 21일 안동 병산서원에서 광복회 경북지부, 경북 중가-중손들의 모임인 영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백산무역100주년과 민립대학’ 강연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임창각의 종손, 석주 이상룡의 증손자, 석주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이항중(82)선생도 참석하였다.



임창각 앞 철길 방음벽을 칠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